



제49회 전남도민체전이 27일 대회 사상 처음으로 화순에서 개막해 열린 4일에 돌입한 가운데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에서 열린 개회식에서 22개 시·군 선수단이 입장하고 있다. /화순=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화순 도민체전 차분하고 경건하게

천안함 희생 장병 애도 분위기속 개막... 나흘간 열전 돌입



천안함 희생장병 애도기간 중 화순에서 열리는 제49회 전남도민체전은 역대 대회 사상 가장 경건하고 차분한 분위기가 속에서 치러지는 대회로 꼽히게됐다. 전남도체육회와 화순군은 애도기간에 맞춰 대회 중 검은 리본 착용·애도 묵념 그리고 가수초청 축하행사 취소 등으로 희생 장

병들의 넋을 애도기로 했다. 이에 따라 27일 열린 개회식 식후행사로 예정됐던 장윤정·주현미 등 7명의 가수 초청공연을 모두 취소시켰다. 하지만 식전행사인 화순 '한천농악' 제전 성공기원 타악기 공연과 특공무술단 공연, '원앤원' 타악과 비보이 그리고 중앙무용단의 소리 공연 등은 그대로 진행됐다. 전국적으로 추모 사이렌을 울려 장병들의 넋을 기리는 29일 오전 10시에 모든 경기장

에서 경기를 중단하고 1분 동안 애도 묵념을 올릴 계획이다. 또 선수단을 포함한 대회 관계자들은 29일까지 검은 근조리본을 달기로 했다. 이를 위해 화순군은 리본 1만매를 제작해 개회식 참석 임원 및 시·군 선수단에 배부했다. 도체육회는 이번 대회가 애도기간 중에 열리는 것을 놓고 취소 또는 연기를 검토하기도 했으나 경제적 부담이 너무 커 강행하기로 했다. /화순=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중부취재본부=정운수기자 unsu@

특히 대회를 연기했을 경우 시·군에서 선수단 참가비를 추가 확보해야하는 어려움이 가장 큰 이유이고, 또 1년여 동안 준비해온 개최지 화순군의 추가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전남도체육회 서정복 사무처장은 "국가적으로 애도기간 지정에 따라 차분하고 경건하게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을 모색했다"면서 "모든 경기장에서 희생장병의 넋을 기리는 등 최대한 예우를 갖추도록 시·군 체육회에 각별히 당부했다"고 밝혔다. /화순=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중부취재본부=정운수기자 unsu@

## 성화 점화자 이용대·조대권 선수 인터뷰



개회식 최대 하이라이트인 성화 점화에서 점화자로 나선 배드민턴 스타 이용대(오른쪽)와 골프유망주 조대권이 대회 성공개최를 기원하며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고 있다. /화순=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고향서 열린 큰행사 기쁨 두배”

#### ■ 이용대 선수

“고향에서 도민체전이 열린 것만 해도 기쁘데, 성화 점화의 주인공이 되니 개인적으로 더욱 영광이고 추억에 남게 될 것 같습니다.”  
 27일 화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제49회 전남도민체전 개회식에서 성화 점화자로 나선 화순 출신의 배드민턴 선수 이용대(화순제일중)가 흥분된 목소리로 점화 소감을 밝혔다. 조대권은 “한달전 아버지로 부터 점화자로 결정됐다는 얘길 듣고 설레임에 잠을 설치기도 했다”면서 “성화 점화가 지 모든 것이 아직도 꿈만 같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용대의 사인을 받았다는 그는 “책상 앞에 붙여놓고 이용대 선수처럼

한 달 전에 성화 점화 제안을 받았다는 그는 “고향에서 열리는 큰 행사인 만큼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저하지 않고 바로 동의 했다”면서 “성화 점화가 생각보다 많이 떨렸다”고 토로했다. 국가대표 생활로 자주 고향을 찾지 못하는 이용대는 “고향민들이 배드민턴에 큰 관심을 보여주고 있으며, 내가 출전하는 대회마다 뜨거운 격려를 보내주는 데 고맙게 생각하며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현재 팔꿈치 재활훈련 중인 그는 매일 물리치료와 웨이트트레이닝으로 정상 기량 되찾기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이용대는 이날 개회식 참가에 앞서 KT 화순지사(시간장 정종영)에서 팬들과 사진촬영 시간도 가졌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 “유명 골퍼 돼 고향 빛내겠다”

#### ■ 조대권 선수

“시합 때보다 훨씬 긴장되고 떨려요. 하지만 이용대 선수와 함께 점화하게 돼 매우 기쁘고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제49회 전남도민체전 개회식에서 이용대와 함께 성화 점화자로 나선 골프 유망주 조대권(화순제일중)이 흥분된 목소리로 점화 소감을 밝혔다. 조대권은 “한달전 아버지로 부터 점화자로 결정됐다는 얘길 듣고 설레임에 잠을 설치기도 했다”면서 “성화 점화가 지 모든 것이 아직도 꿈만 같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용대의 사인을 받았다는 그는 “책상 앞에 붙여놓고 이용대 선수처럼

유명한 선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굳은 결의를 보이기도 했다. 아버지의 권유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골프 클럽을 잡은 그는 지난 전남 도교육감배 학생골프 대회에서 중등부 3위를 기록했다. 신장 170cm, 체중 66kg의 좋은 체격조건에다 안정된 자세와 탁월한 샷 감각까지 갖춰 차세대 골퍼로 성장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하루 8시간씩 샷 연습에 전념하고 있는 조대권은 PGA 챔피언십을 거머쥔 양용은을 가장 본받고 싶은 골퍼로 꼽았다. 조대권은 “최경주 선수도 존경하지만, 메이저대회에서 우승한 양용은 선수처럼 되는 게 나의 목표이다”며 두 손을 불끈 쥐어 보였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 “졸전 그만”...호랑이들의 변신

김상훈·이용규·나지완 등 새 다짐 각오 '삭발'

조범현 감독 “분위기 바꾸자” 훈련 도우미 나서



<김상훈>



<이용규>



<나지완>

분위기 전환을 위한 호랑이들의 변신이 있었다. 지난주 최하위 넥센과의 주말 3연전에서 졸전을 펼치고 돌아온 KIA 타이거즈의 덕아웃에 '헤어스타일'이 화제가 됐다. SK 와이번스와의 시즌 4차전이 예정된 27일, 정식 훈련 시작시간은 오후 2시30분이었다. 하지만 모범생 최범현을 필두로 해서 일찌감치 경기장에 모습을 드러낸 타자들은 오후 2시도 못돼 방망이를 휘둘러댔다. 일찍 방망이를 든 타자들 사이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선수가 있었다. 85년생 동갑내기 외야수 이용규와 나지완이 머리를 짧게 자르고 나타나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두 선수는 휴식날이었던 26일 함께 미용실에 가서 머리카락을 똑똑 잘라냈다. 팀의 테이블 세터와 중심타자로 기대를 모았던 이용규와 나지완은 앞선 5경기에서 0.214, 0.200의 타율을 기록하는데 그치며 제 몫을 다하지 못했다. 이용규는 변화의 이유에 대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보내기 위해 머리를 짧게 잘랐다”고 설명했다. 나지완도 “중학교 이후 이렇게 짧은 머리를 해본 적이 없다”며 “머리를 자를 때의 심정으로 타석에서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주장 김상훈도 짧은 머리를 한 채 덕아웃

에 등장했다. 이발의 이유는 이용규·나지완과 같았지만 표정은 두 후배 선수보다 더 비장했다. 김상훈은 “지난주 정말 창피할 정도로 졸전을 펼치고 왔다. 새로운 마음으로 야구를 하기 위해서 머리를 정리했다”고 나직 SK와의 경기를 앞둔 심경을 밝혔다. 이번 제도는 1·2군 엔트리에 포함되지 않은 선수들을 3군에 배치해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선수들간의 경쟁을 유도해 전력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또 기존 1군 엔트리 26명을 제외한 나머지 50여명의 2군 규모로 체계적인 훈련과 집중 훈련이 힘들다는 판단에 의해 3군 운영이 결정됐다. 3군 선수들은 지역 대학 및 고교팀과의 연습경기과 집중훈련 등을 소화하게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KIA 3군 시스템 가동

KIA 타이거즈가 국내 프로야구단 처음으로 3군시스템 가동에 들어갔다. KIA는 기존 1·2군 선수단 외에 육성군 성격의 3군을 신설해 3단계 선수 육성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차영화(야수 담당)·신용근(투수) 코치가 3군을 맡게 되며 김경진 스카우트가 매니저 역할을 담당한다. 이번 제도는 1·2군 엔트리에 포함되지 않은 선수들을 3군에 배치해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선수들간의 경쟁을 유도해 전력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또 기존 1군 엔트리 26명을 제외한 나머지 50여명의 2군 규모로 체계적인 훈련과 집중 훈련이 힘들다는 판단에 의해 3군 운영이 결정됐다. 3군 선수들은 지역 대학 및 고교팀과의 연습경기과 집중훈련 등을 소화하게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김종국 플레잉 코치로

KIA 타이거즈의 '수비의 신' 김종국이 플레잉 코치로 활동한다. 3군 시스템을 가동하게 된 KIA 타이거즈가 차영화 코치가 3군 코치를 맡게 되면서 생긴 공백에 김종국을 플레잉 코치로 선임했다. 김종국 플레잉 코치는 앞으로 선수 활동과 2군 선수단 코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게 된다. 1996년 해태에 입단한 김종국은 2009시즌까지 통산 1359경기에 출장해 1086안타 타율 0.247, 66홈런 429타점 604득점 254도루를 기록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광주일고 '1박2일' 개막전 승

대통령배 전국고교야구

유창식 첫 완투... 군산상고 꺾어

광주일고가 대통령배 군산상고와의 '1박2일' 개막전에서 3-1로 승리했다. 광주일고는 27일 목동구장에서 열린 군산상고와의 대통령배 전국고교야구대회 개막전에서 상대 폭투에 힘입어 3-1로 역전승을 거뒀다. 전남 양팀은 6회말까지 1-1로 팽팽한 투수전을 벌였지만 우천으로 서스펜디드 게임이 선언이 되면서 27일 다시 그라운드에서 7회초 광주일고의 공격부터 진행된 이

날 경기에서 광주일고와 군산상고는 각각 7회 1사 2루, 2사 만루의 절호의 득점기회를 얻었지만 득점으로 연결 시키지 못했다. 8회 광주일고 선두타자 이현동이 중전안타로 출루한 뒤 최병민과 볼넷 두 개가 나오면서 2사 만루, 상대 투수 장국현의 폭투가 나오면서 3루주자 이현동이 홈을 밟았다. 9회에는 하일의 3루타와 김요셉의 적시타를 묶어 1점을 더 달아내며 3-1로 승리를 확정지었다. 광주일고 선발 유창식은 9회까지 마운드를 지키며 4피안타 3사사구 12탈삼진 1실점의 호투로 대회 첫 완투승을 장식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